



# 김영우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바란다

## 균형 감각과 문화적 창의력을 기대하며

이번 포천연천 지역의 김영우 국회의원 당선인은 '젊은 피'라는 어휘에 딱 부응하는 그런 인물로 보인다.

사실을 막 넘어선 나이가 그렇고 박사과정을 수확한 그의 지적 이력도 지금까지 이 지역의 정치인에게는 드물었던 경력이어서 또한 그러하다. 사진으로만 접했지만 지적인 날카로움이 물씬 풍기는 그의 외양도 그야말로 '이 지역에 젊은 피가 수혈되었다'라는 느낌을 돕기에 족하다. 이번에 당선된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도 매우 젊은 편에 속할 것 같은데 어쩌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국회의원직이란 자신이 선출된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사까지도 돌보아야 하는 자리인 만큼 그 지위의 중요성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란 직책은 각계각층의 인물들로부터 온갖 고인, 건의, 비판을 감내해야 하는 자리인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필자는 대학에서 문화를 가르치고 문화예술의 창달자로 자임하며 살아오고 있는 터이므로 사실 지역이나 국정의 실제적이며 정치적 의제들과 관련해서는 문외한이다. 그러나 필자가 염오로 삼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당선된 김영우 당선인에게 드릴 고언이 있다.

솔직히 토로하건데 이번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 그리고 지난 대선 결과를 돌이켜 보는 필자로서는 실상 무언가 위태롭다는 감을 금치 못한다. 보수 세력의 대표를 자임하는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전체 판세를 볼 때 약 200석 가까운 의석이 보수적 정당들에 의해 점유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선택이 그러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대의 민주주의의 주된 에너지가 그 쪽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에 어찌할 도리도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경제와 균형이 또한 필수적인 조건이기에 지난

대선과 이번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너무 한 쪽으로 편향되었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어느 단체, 어느 집단이건 세가 휘와 아집으로 호를 개연성이 높이지기에 두 번의 선거 결과는 필자에게 매우 어렵게 여겨진다. 좌든 우든 세의 비율은 6:4 정도는 되어야 경제와 균형에 의한 창의적, 생산적 정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실제로 대의민주제의 선진국인 미국과 같은 나라의 선거 결과는 늘 그 정도의 균형 감각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김영우 당선인에게 지역과 국가, 시대와 사회를 깊고 넓게 보아 자기 스스로 균형 감각을 늘 갖추어 주기를 기대하고 싶다. 필자가 바라는 균형 감각은 가령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이번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가 가장 우선 순위에서 두는 국정 목표는 경제 살리기인 듯하다. 맹자도 백성에게 있어서 먹고사는 것이 으뜸(民以食爲天)이라 하였으니 우선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경제를 살리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이다. 특히 요즘은 세계적 경제 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경제 성장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니 경제를 살리는 데 현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삶을 여유 있게 꾸릴 수 있도록 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현정부는 너무 경제 살리기에만 몰인하는 듯하여 우리들의 삶과 관련한 다른 분야는 도외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

김영우 당선인도 공약의 우선 사항이 경제 살리기였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기에 경제적 지표의 성장과 함께 반드시 같이 해야 할 것은 문화적 수준의 고양이다. 동물적 삶과 구분되는 인간의 삶 그 자체에 이미 문화라는 개념이 함축되어 있지만 보다 좁게 볼 때 문화는 정신과 의식 측면의 자각적 활동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른바 문화예술이라는 용어 속에 그러한 개념이 가장 잘 융해되어 있다. 문화예술

은 누구나 이해하는 바와 같이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건축 등이 그 하위 장르이고 이것을 누리고 스스로 참여까지 할 수 있을 때 삶의 질적 수준이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물질적 성장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문화적 삶은 누릴 수 있는 충분한 단계에 이미 이르러 있다. 문화의 향유는 경제적 토대가 필요한 법인데 그 정도의 경제적 수준에는 충분히 이르렀다는 것이다.

문화 수준의 발전은 한 지역이나 국가의 의식 수준을 높임으로써 윤리나 도덕 감각을 내면화시킬 수 있게 하고, 창의적 감수성을 촉진케 하여 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관점에서 김영우 당선인은 포천과 연천 지역의 문화 예술의 견고한 기반 마련에 애써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미 김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에 전원형 신도시 개발과 매력 넘치는 도시 만들기라는 과제를 설정해 놓고 있음을 보았지만 여기에 '문화'라는 키워드를 접목할 때 이것은 한결 풍부하고 내실 있는 프로젝트로 될 것이다.

가령 포천과 연천의 지역 이미지는 아직도 접경지역이라는 개념이 강하다. 포천이라 하면 수도권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군부대가 많은 곳, 이동 갈비, 이동 막걸리 아니면 산정 호수 정도의 이미지로 떠오를 것이다. 김 당선인은 이러한 이미지를 박식시키고 새로운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해야 할 과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학이 가지는 통합적 상상력, 역사가 가지는 실증적 탐구력, 철학이 가지는 개념 생성력, 기타 여러 예술 분야들이 가지는 창의성을 접목하여 문화 콘텐츠를 창조하고 이것을 포천과 연천의 지역 이미지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포천·연천의 문화, 역사, 지리적 환경 등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포천이나 연천하면 사람들이 즉시 연상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이것을 이미지화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기존의 접경



김성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교수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사람들에게 포천·연천은 참으로 자연 친화적 도시이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스토리야 할 것이다. 요즘은 상품을 팔더라도 배경 스토리와 역사를 가진 상품이 더 큰 구매력을 가지는 만큼 이 지역에 어떤 스토리를 접목시키기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 하나는 포천 지역 같은 경우 최익현, 오성파 한음, 양사언, 이회조 등의 문화인물들을 배출한 지역인 바 이들을 한데 묶어 소개하는 기념관 같은 것을 적절한 위치에 건립하고 그 주변을 휴식과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관광지로 건설하는 사업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회석 문학 기념관 같은 곳은 그것이 건립됨으로써 그곳 부평 일대의 주민들이 메밀 꽃 축제, 메밀을 재료로 한 먹거리 등을 개발하여 하나의 문화산단으로 성공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천·연천은 장차 통일이 되면 금강산, 명사십리 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당장에 포천·연천은 분단의 벽을 허물어 통일이 되면 한국의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최초의 거점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문학, 음악, 연극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구성하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멀리 보면 문화와 경제는 별도의 다른 영역이 아니다. 단지 균형 감각과 긴 인맥을 가진 지도자라면 이들을 통합하여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더 향상된 경제적 지표의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포천과 연천이 세련된 문화적 수준과 품격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여 수도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조차 찾고 싶어하는 명품 도시로 거듭나도록 김 당선인의 맘과 수고를 기대한다.

# 친근한 이웃같은 정치인이 되길

먼저 압도적인 지지 속에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금번 총선의 결과는 절대적인 안정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민심이 드러난 결과로, 경제를 잡겠다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포천시 관내 300여 교회를 대상으로 포천시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당선인에게 몇 가지 바램이 있습니다.

첫째, 무너져 가는 윤리를 세우는 정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에 정치권에서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도덕적 가치와 윤리가 혼탁한 법들이 제정되려는 시도를 바라보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혹의 폐지, 동성애자 결혼 허용, 특정종교인의 병역면제, 낙태의 합법화 등이 나름대로 명분과 가치를 지닌다 할지라도 이런 제도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도덕과 윤리를 혼탁하게 하여 결국 국가의 초석이 되는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둘째, 일요일 국가고시의 시행을 철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은 모든 국민이 쉴 수 있는 법적 보장이 된 날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예배와 봉사 등으로 삶의 가치를 찾는 소중한 날로 국가가 제도권으로 이날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토요일 휴무제가 도입되어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시험을 칠 수 있는 날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셋째, 사학법은 재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몇몇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전횡과 횡포로 인해 교육기능을 상실한 채 교육기관을 사유화하고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예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런 부작용과 폐단을 없애려고 사학법이란 칼로 모든 교육기관을 통제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독교 정



박춘식 목사  
포천시기독교연합회장

으로 세워진 사립학교는 건국 이래 지금까지 국가의 초석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사회에 큰 공을 세워 왔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립학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 사학법은 많은 부분에서 재개정이 되어야 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김영우 당선인께서 포천시민의 민심과 함께 하는 참신한 정치인으로 행보를 계속하여 지역주민의 어려운 곳을 뚫어주는 친근한 이웃과 같은 정치인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 교육문제만큼은 반드시 실천할 것 당부

축석고개에 아침 출근시간이면 서울과 의정부에서 포천시로 들어오는 하행선이 상습 정체된다. 반면, 포천시에서 의정부와 서울 하행으로 가는 상행선은 차가 별로 없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은 아침에는 서울로 출근하는 상행선이 저녁에는 서울에서 퇴근하는 하행선이 정체되는 것과 사뭇 다른 풍경이다.

이것은 직장 또는 사업장이 포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서울 또는 의정부에서 하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직장이 포천에 있고, 포천의 집안이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훨씬 싼데도 불구하고 포천에서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포천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녀의 교육 때문이다. 포천에서 돈을 벌면 의정부로 가고, 의정부에서 돈을 벌면 서울로 가는 이유를 물어보면 자녀 교육 문제라고 한다. 포천에서 성공한 사업가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심지어 시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대부분이 본인이 포천에서 출생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가족은 서울 또는 의정부에 거주한다. 따라서 매일 출퇴근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4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한다. 교통, 편의시설, 공원, 교육여건이 그것이다. 포천시 주민이라면 모두 포천시 교통이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의 질이 포천시 발전을 위해 교통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난 3월 18일 중앙일보에는 포천시 승격에 따라서 포천고등학교가 농어특목발원형에서 배제되어 보통학교로 전락한 것이 보도되었다. 이제 살만한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더 많이 포천에서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포천에 거주하는 학부모는 의지에 나가 있는 자녀 교육을 위해 많은 금전적, 시간적 지출을 감수하고 있다. 만일 포천에 전국에서 제일가는 초·중·고교가 있다면 이런 부담이 절감될 것이다.

만일 포천의 유력한 지도자가



하재인  
포천시 교육청 총장  
운영위원회장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포천시 자녀 교육의 질이 향상되면 학부모의 비용도 절약되고,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며, 집값도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이 시작하는 새 국회의원에 희망을 걸어본다. 새 당선인이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제시한 많은 공약 중에서 교육문제만큼은 반드시 실천할 것을 당부한다.

국회의원은 명실상부한 이 지역 최고의 리더이기 때문이다. 포천 지역의 교육문제의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학부모와 지역사회, 각종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에 강조하면서 주민을 한 데 묶는 리더십을 기대한다.

포장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 비닐쇼핑백, 종이쇼핑백, 각종 비닐포장재 전문생산



- 1983년 : 대봉화학 창업
- 1985년 : 남대문시장 대리점 OPEN
- 1990년 : 동대문시장 대리점 OPEN
- 1994년 : 대봉 마리트 확장 이전(부정 1공장)
- 1996년 : 아쿠르트(주) 비닐 백 납품개시
- 1999년 : 동대문 밀리오리 납품개시
- 1999년 : 품질 보증 지정업체 선정(Q마크)
- 2000년 : 마리트 산업(주) 종이쇼핑백 구리 2공장 설립
- 2001년 : 농협 하나로 쇼핑백 납품개시
- 2001년 : 마리트 비닐포장 대리점 OPEN
- 2002년 : 매일 비닐포장 대리점 OPEN

포장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대봉매리트는 기획에서 디자인, 인쇄, 가공, 완제품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을 원라인으로 처리하여 귀사의 제품을 보다 안전하고 품위있게 유지시켜 드리겠습니다.

## 비닐 쇼핑백



## 비닐 제품



## 공장·사무실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611-4  
Tel. 031)544-0051  
Fax. 031)544-0052

대표: 임 대 섭